



KTF 이경준 신임 사장 선임

KTF는 지난 2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 사장에 자사 이경준 이사(KT기획조정실장)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임 이경준 사장은 초대 이상철 사장(현 정보통신부 장관), 2대 이용경 사장(현 KT사장 내정자)에 이어 KTF의 3대 사장으로 취임하게 됐다.

이경준 신임사장은 1948년 김제에서 태어나 1978년 독학으로 기술고시를 합격한 후 체신부, 한국통신 네트워크본부를 거쳤고, 98년부터 2001년까지 (전)한통프리텔, (전)한통엠닷컴의 기술부문장 및 네트워크부문장을 역임하며 PCS 전국 상용망 구축, 합병에 따른 양사간 망통합을 주도했으며, 2001년 KT로 복귀, 수도권서부본부장, (현)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 사장은 독학으로 기술고시,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시험을 합격한 데서 잘 나타나듯 한 번 맡은 일은 특유의 책임감과 치밀함, 강한 추진력으로 반드시 이뤄내는 성격이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전)한통프리텔 기술부문장으로 재직하면서 불과 1년 남짓 만에 전국 이동전화망을 성공리에 구축, 업계를 놀라게 한 것이 대표적 예다.

한편, KTF는 이미 지난 31일 조직규모 확대에 따른 효율적 경영활동을 위한 부사장직 신설, IR및 재무분야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 및 이에 따른 인사를 단행했다.

개편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사장직 신설과 기존 경영지원총괄 소속이었던 재무실을 독립된 실로 분리했으며, 경영지원총괄의 명칭을 경영지원실로 개칭하는 것이다. 개편에 따라 기존 3총괄 4실이던 KTF본사 조직체계는 2총괄 6실로 바뀌었다.

한편, 신설된 부사장직에는 김우식 전무(기존 경영지원총괄)가 승진 임명됐다.



휴대폰으로 IT자격증 취득

KTF는 IT 자격검정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원장 최성규)와 IT인력개발협력에 관한 업무제휴를 체결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인터넷으로 시험을 보이는 경우는 있었지만, 휴대폰(무선인터넷)으로 접수하고, 또한 응시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휴대폰 IT자격증 시험 접수 및 응시에 최초로 도입 되는 시험은 'M-Commerce 관리자 2급'으로, 이 자격증은 유무선 전자상거래 업체, 이동통신사 등에서 전문인력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유망한 IT 자격증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KTF는 제 2회 'M-Commerce 관리자 2급'의 1차 시험을 자사 무선인터넷 매직엔을 통해 접수를 받고 시험 또한 무선인터넷을 통해 응시케할 계획이다.

이번 제 2회 'M-Commerce 관리자 2급' 1차 시험을 매직엔을 통해 응시하는 사람은 1차 검정수수료(1만 5천원) 전액을 KTF가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또한 무선인터넷으로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최종 시험(실기)에서 'M-Commerce 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 성적 우수자를 선발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제 2회 'M-Commerce 관리자 2급'의 1차 시험 응시 접수는 본인의 휴대폰을 통해 매직엔에 접속, <베스트짱&이벤트> - <2.추천서비스> - <1.M-Commerce 관리자 자격시험> 순으로 클릭한 후, 응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2차 시험 희망 지역을 선택하면 된다.

시험 응시는 해당 기간 중 어느 때나 60분간 응시가 가능하며, 접속절차는 응시 접수 때와 동일하고 합격여부는 시험 종료와 함께 즉시 발표된다.

합격자는 2차 시험(실기)에 자동 접수되므로 별도의 접수 절차를 안 거쳐도 된다.

휴대폰 'IT자격증 시험'은 향후 국가공인 인터넷정보검색사, 리눅스마스터, 웹콜마케터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주)기산텔레콤 VDSL SpeedUp-2000U, GD 마크 획득

(주)기산텔레콤(대표 박병기 www.kisantel.co.kr)의 VDSL제품군인 SpeedUp-2000 series 중 사용자 단말 제품인 SpeedUp-2000u가 GD마크를 획득했다.

우수산업디자인마크(GD)는 품질이 우수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며 디자인이 뛰어난 상품임을 정부가 인정하여 부여하는 마크로써, 매년 통상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KIDP)가 주관하여 각 부문별 출품작 중 우수 제품에게 주어진다.

GD 선정 상품들은 디자인혁신상품개발사업 신청시 3년간 우선지원하고 선정상품에 대해 일간지, 경제지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국내외전시회 참가시 우선 추천되는 특전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정부로부터 우수산업디자인(GD:Good Design)마크를 부여받은 제품 정부 조달 물품 선정시 국산신기술(KT)·신기술상품(NT)·우수품질(EM)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과 마찬가지로 각종 우대를 받게 된다.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은 상품가치를 인정 받아 수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력이 취약한 한국 기업은 디자인에 더욱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주)기산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VDSL제품의 GD마크 획득에 큰 의의를 두었다.

또한 현재 일본 등 동남아시아 등지로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VDSL 장비군에 이번 GD마크 선정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양 SYSTEMS

동양시스템즈 재해복구사업 강화

동양시스템즈(대표 윤여현 www.tysystemhouse.com)는 지난 6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재해복구시스템(DRS)에 이어 지난 10일 알리안츠생명 DRS 컨설팅 및 구축사업을 잇달아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재해발생 시 신속하게 보험업무가 재개될 수 있도록 전

체 정보시스템에 대한 DRS 컨설팅을 수행하고 알리안츠생명의 서울 여의도동 본사 정보시스템 센터와 신설동 지역본부 내에 백업센터 및 DRS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편, 지난달 구축 완료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DRS는 백업센터와 재해복구 시스템이 실시간 백업(미러링) 기술을 통해 구축/가동됨으로써 불의의 재해 발생 시에도 데이터 손실율이 전혀 없이 계정계, 정보계, 대외계 및 e-Marketplace 시스템을 비롯한 주요 업무 시스템을 전환 결정 후 30분 이내에 재가동할 수 있는 종합 재해복구 시스템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재해복구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 백업 시스템이 아닌 기존 운영 시스템과 동시에 24시간 365일 병행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기존 IT 환경은 물론 향후 IT 기반 구조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 투자대비 효과를 극대화 시켰다

동양시스템즈는 지난 2000년 동양증권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동양생명과 미래에셋 증권 재해복구 사업 제안에 참여하는 등 C/S 기반 정보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 컨설팅 및 솔루션 제공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대우정보시스템, 웹 리포팅 사업 순항

대우정보시스템(대표 박경철, www.daewoobrenic.com)은 웹 상에서 각종 보고서 및 분석 차트의 제작 및 출력해 주는 웹 리포팅 시장에서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우정보시스템은 지난해말 대길소프트(대표 강상희, <http://www.ezgen.co.kr>)의 '이지젠(EZgen)' 총판계약을 통해 올해 초부터 사업을 진행한 이래 국민은행, (주)국순당, 삼성물산(주), 대우조선, (주)한국샤프 동원금속공업, 대우건설, 산업기술평가원, 해양경찰청, 한국화장품, 인천도시가스, 한국정보통신대학, 교보증권, (주)쌍큐플러스, 인천지하철공사, 대동모벨시스템(주), 고려해운, 한미약품공업(주), 한국마사회, 등 50여개 업체에 연속 수주를 하고있다.

이지젠을 도입한 국순당 전산실의 정정미씨는 "이지젠(EZgen)은 웹 리포팅 및 분석 차트 제작은 물론, 웹 개발경험이 부족한 개발자도 손쉽게 접근하여 웹상에서 데이터를 직접 엔트리하는 웹 애플리

케이션을 간단하게 작성 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어 업무 효율을 30% 이상 끌어올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국내 웹 리포팅 시장은 지난해 150억원 규모를 보였으나 올해 300억원을 상회하는 시장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대우정보시스템 관계자는 “자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이지젠의 영문 번역작업이 이미 완료되어 폴란드시장 및 영어권시장에 영업을 개시했고 일본시장을 대비한 일본어 버전도 곧 출시 예정이어서 올해 하반기에는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며 예상 매출액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LG텔레콤, 무선인터넷 무제한 이용 요금제 출시

LG 텔레콤(대표 남용, www.lg019.co.kr)이 새로운 이지아이 올 나이트 등 4종의 무선인터넷 요금제를 출시하고 가입자 유치에 본격 나선다.

LG텔레콤은 8월 1일부터 이지아이 올 나이트(ez-i All Night) 요금제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 요금제는 심야시간대(00:00~08:00)에 무선인터넷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기타시간의 경우 패킷당 5.5원)이다.

현재 10대와 20대의 경우 요금부담으로 무선인터넷에 대한 지속적 사용이 불가능 했지만 특정 시간대에 한해 무제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지아이 올 나이트 요금제와 함께 LG텔레콤은 사용량에 따라 자동적으로 요금이 할인되는 이지아이 프로(ez-i Pro) 요금제(기본료 5,000원에 2,000패킷 무료제공)도 새롭게 선보였다.

무선인터넷 다량 사용자를 위해 출시된 이지아이 프로는 2,500패킷 단위로 0.5원 씩 할인 요율을 적용, 초과 요율에 대한 무선인터넷 이용료 및 다량 사용에 따른 할인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즉, 5000패킷 사용시까지는 패킷당 2.5원의 요율이 적용되나 7,500패킷과 10,000패킷 까지는 각각 2원과 1.5원, 그리고 10,000패킷 이상 사용시엔 1원이라는 파격적인 요율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LG텔레콤은 무선인터넷 소량 사용자들을 위해 월정액

3,000원에 1000패킷(512Byte) 무료가 제공되는 이지아이 라이트(ez-i Light)와 월정액 1,500원에 400패킷이 무료인 이지아이 미니(ez-i Mini)도 출시했다.



하나로, 2차 남북합작 애니 '뽀로로' 제작

하나로통신(주)(대표 신윤식, www.hanaro.com)은 최근 통일부로부터 북한의 삼천리 총회사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남북합작 3D 애니메이션 <뽀로로 뽀로로>의 사업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2차 남북합작 애니메이션 제작에 돌입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하나로통신이 북한의 삼천리총회사와 공동으로 제작하는 <뽀로로 뽀로로>는 호기심 많은 말쑥꾸러기 꼬마 펭귄 '뽀로로'가 일상에서 겪는 재미있는 호기심 해결과정을 소재로 한 TV용 3D 애니메이션으로서, 편당 5분짜리 총 52편 중 22편이 북한에서 제작되며, 올 12월에 TV 방영 예정이다.

이번 <뽀로로 뽀로로>의 기획과 마케팅은 하나로통신의 공식 사업대행사인 (주)아이코닉스 엔터테인먼트가 담당하며 캐릭터 제작은 사이버 뉴스 앵커 <나잘란 박사>로 유명한 (주)오콘이, 애니메이션 제작은 (주)오콘과 북한의 삼천리총회사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하나로통신은 우선 <뽀로로 뽀로로>를 시청자가 재미와 함께 다양한 학습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단순한 오락용이 아닌 교육용 애니메이션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하나로통신은 이를 위해 ▲놀이학습, ▲과학학습, ▲생활도구를 활용한 기술학습, ▲창의력학습 등 4개의 교육용 테마로 <뽀로로 뽀로로>의 시나리오를 구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 향후 <뽀로로 뽀로로>의 캐릭터들을 활용한 인형, 팬시 문구류, 모바일 캐릭터 다운로드 등 본격적인 캐릭터 merchandise 및 캐릭터 수출도 병행해 수익기반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